지적재산권

입법지원. 나눠지는 것은 문화예술분야와 아동지원.

아동지원 – 복지 사각지대를 돕는.

시적 정의.

문화예술 이외에도 아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 가사사건 변호사에 관심이 있었으나 심리적 거리를 두지 못하고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제외함.

나만의 포트폴리오

기본적인 성장배경

- 어머니가 초등 교사. 특수교육대학원 석사. - 장애아동 교육문제

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좋아함. 어린 시절 겪은 일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. 교육, 교육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음.

학창시절

- 공부. 어쩌다 부산외고 입학. 성적 스트레스 있었지만 열심히 함.

- 고등학생 때 복지관에서 봉사. 방과 후 공부방에서 아이들 지도. 알파벳 아는 정도의 중학생 영어 가르치면서 아이가 재미를 붙였을 때 큰 보람을 느꼈음.

- 장애인 돌봄 관련 봉사활동 했었지만 어려워했음.

대학 재학중

-1학년 때 과대표

-장애인 친구 도우미 근로활동 했는데 이동이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잘 못 했음.

-수석 졸업

-문화콘텐츠학과 재학 도중 인문학 소양 쌓고 싶어 영문과 복전함

-국제도우미 활동하면서 교환학생들 정착에 관한 서류작업 및 활동함. 학교 적응 돕고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함께 함.

-저소득층 아이들에 휴대폰을 지급하고 학생 멘토와 연결해주어 유대 관계를 만들어 아이들의 외로운 삶에 함께하자는 아이디어로 삼성 대학생 서포터즈 합격하여 활동함.

-미시시피 대학교 한 학기 교환학생 – 연극예술학과의 시나리오 수업, 연기 수업, 단편제작 수업, 영미희곡 수업 들음. 시나리오 직접 쓰고 연기한 단편 호평 받음.

-이어서 한 학기 더 휴학하고 포틀랜드로 어학연수. Community College 가서 단편제작 수업 들음. 프로듀서 하면서 캐스팅, 연락 및 제작 참여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음. 학생이라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보통 제작 환경에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지키거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움. 다음 학기에는 그냥 painting, drawing, calligraphy, pottery 와 같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예술 수업들 들으면서 즐겁게 생활.

-인터내셔널 클럽에 들어 외국 학생으로서의 인권에 대해 생각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, 인터내셔널 패션쇼에 한복 입고 나가기도.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에 즐거움을 느낌.

-한국 돌아와서 외국인 교류 동아리하고 학교 다니고.

-영화마케팅 프로그램 다님. 영화 홍보사 사람들이 강연하고 직접 시나리오 받아서 팀별로 홍보마케팅 기획해봄. 홍보사 과도 근무 현실. 같이 했던 사람들 취직 했다가 아파서 그만둘 정도.

-방송사 작가 친구들 – 근무 표준 필요하다는 생각 함.(노동시간초과, 저작권, 임금체불, 성추행 등)

대학원

-막 학기에 대학원 시험 준비, 전공시험과 제2외국어 독해 시험보고 운이 좋아 바로 입학.

-문학은 세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학문. 시대, 인간관계, 삶, 지극히 내면적이기도 하고 현상을 초월적인 철학까지 모두 다룸.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됨. 공감과 몰입, 이해와 포용이 필요한 학문. 쟁점 분석력.

-작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고전이 된다.

-그러나 텍스트에 갇혀 있는 것이 싫었음.

-소설쓰기 활동

-네이버 뉴 플랫폼 『디스코』 에디터 – 정보 큐레이션 어플.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링크 올리고 부연하는 글 쓰는 활동. 트렌드를 읽고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일. 시야가 넓어졌던 활동.

-서울대학교 미술관 도슨트 활동. - 전시명이 『포스트모던 리얼』. 다소 설명이 난해한 해설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 단체. 한국어를 잘은 못 해서 난감했는데 인솔자 선생님이 이 분들이 전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미술관에 온 자체가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씀해주심. 엄마가 문화예술에 거부감이 없고 경험이 있어야 아이들과 같이 다시 와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취지. 최대한 쉬운 단어로 흥미롭게 설명하려고 노력 했는데, 어린 나이의 어머니들이 소풍 온 것처럼 재미있게 즐겨주어서 보람찼다.

-그리고 초등학생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이 왔을 때 눈높이에 맞게 얘기해주면 점잖은 어른들보다 즉각적으로 크게 반응해주는 것도 인상적이었다.(어려운 것을 쉽게 – 법률가와 일반인 사이의 가교 역할)

-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관람객 분들도 계셨다.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의 작품을 설명했을 때 사업 잘 되고 평탄하게 살다가 대기업이 제품을 카피했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경제적 위기를 맞은 이야기를 들었다. 예술은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자 처음 보는 사람과도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드는 활동들이었다.

-학점은행 민법총칙, 채권총칙 수강. 둘 다 A+

결국 관심 분야

-문화콘텐츠(유튜버 – 가야금을 연주하는 힐링 콘텐츠 등), 예술 작품(정통 예술을 비롯하여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돕는 일)의 저작권 분야. 지적 재산권.

-국가기관에서의 문화 교류에 기여(문학 수출 일, 한국문화 알리는 관련재단 – 한국외대 통번역 최정화 교수의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 활동, 한국콘텐츠진흥원, 영화진흥위원회 등)

-청년 사업에 기여(북퍼퓸 – 책에 어울리는 향수, 차이의 놀이 –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플, 요새 많은 청년몰, 아트마켓)

-아동 교육, 활동 관련(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문화와 관련지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. 엘 시스테마 같이 아이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만들기)

-그러나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음.

-활동하면서 관련 글 쓰고 싶음. 법에 대해 접근성 높이는

장단점

장점

준비성. 위기대처능력 – 국제도우미활동. 도슨트 할 때 공부하고 관람객 특성별로 다르게 한 것.

융합가능성 – 문화콘텐츠, 문학적 인문소양, 법으로 갔을 때 시적 정의. 인간에 대한 공감.

소통능력. 성실성. 친화력. 주어진 일은 꼭 해냄.

단점

마음이 약함. 게으름. 걱정이 많음- 생각이 많은 것, 신중함.